

1 제 1 편

(비문학편)

사고 교정 - 생각의 틀을 만들자 -

1 국어 영역이 뭘까?

* 오해하지 말자!

“국어 영역은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보여요. 특히 국어 공부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학생보다 공부를 어느 정도 진행한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아직 학습을 시작하지 않은 친구는 그 말을 전해 듣고 “아, 국어 영역은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과목이구나.” 하고 겁을 먹습니다.

국어는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높은 성적을 받는 친구를 보며 “국어는 타고나는 건가봐. 저 친구는 머리가 좋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저 친구는 어릴 때부터 독서를 많이 했을 거야. 나는 시험이 몇 달 남지 않았으니 1등급은 안되겠지?” 하며 **친구의 성적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성적에는 마침표를 찍어요.**

국어 영역에 대해 무엇을 알고 얼마나 알기에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가요? 등급이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국어 영역을 멋대로 결론지을 수 있을까요? 제가 분명하게 말할게요. **국어 영역은 공부하면 성적이 오릅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오릅니다.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오해는 스스로 만든 것이예요. 그것은 국어 영역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 거예요. “**그러면 공부했는데 왜 성적이 오르지 않은 것은 뭐죠?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제가 수험생일 때가 생각합니다. 국어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 고민이 참 많았어요. 노력 부족인 줄 알고 더 열심히 했지만 성적은 오르지 않았죠. 이대로는 공부해도 성적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펜을 내려놓고 책상에 앉아 오랜 시간 고민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마침내 답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 나는 국어 영역을 공부하고 있지 않았다

오랜 고민 끝에 **나는 국어 영역을 공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공부를 했으면 성적이 올라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국어 영역이 아닌 것을 공부하고 있었기에 점수가 오르지 않은 거예요. **자리에 앉아 강의를 듣고 교재를 보면 어떻게든 될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점수가 향상되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어요.

*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일상의 국어와 시험의 국어는 달라요.

국어 영역을 제대로 공부할 수 없었던 이유는, 국어 영역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는 것이 없었죠.

국어 영역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계단을 오르듯 순서대로 하나씩 생각을 전개해야 해요. 우선 **일상에서 사용하는 국어와 시험의 국어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합시다. 이 내용은 앞서 짧게 얘기한 적이 있죠.

우리는 꽤 오랜 시간 한국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한글만으로 구성된 국어 영역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내가 알던 국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무척 어렵게 느껴집니다.

일상의 국어와 시험의 국어는 활용 정도와 방향이 다릅니다. 국어 영역에서는 글을 읽고 문제를 풀어야 해요. **문제를 푼다는 것은 제시문에 주어진 정보를 문제의 요구에 따라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읽은 내용을 재료로 삼아 생각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글을 잘 읽는 것과는 다릅니다.** 독해를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를 문제에 맞게 요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국어 공부가 무엇인지 감이 오나요? 국어 영역 공부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독해력과 문제 풀이 능력**이예요.

* 국어 영역이 요구하는 것

1. 독해력
2. 문제 풀이 능력

이제 이를 바탕으로 수능의 다른 영역인 영어 영역, 수학 영역과 국어 영역을 비교하며 국어 영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요.

* 국어 영역의 독해력에 대하여 : 영어 영역

영어 영역과 국어 영역을 공부하는 과정을 비교해보면 국어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독해에 대한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영어 영역을 처음 공부한다고 가정해 봐요. 무엇을 먼저 공부하죠? 문장 속에서 주어, 동사를 찾는 연습을 하죠. 그 다음 문장의 나머지 성분인 목적어, 부사어를 찾는 연습을 하고 구나 절을 다루는 방법을 공부합니다. 이렇게 문장 공부를 마친 후 글을 공부하기 시작하죠. 시중에 다양한 영어 교재와 강의를 있지만 대부분 학습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글은 문장들이 결합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글을 읽기 위해서는 글의 재료인 문장을 읽을 수 있어야겠죠. 주어, 동사, 목적어를 찾는 것은 문장을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글을 읽기 위해서 먼저 문장을 공부하는 것이죠.

영어든 우리말이든 글은 문장이 하나씩 쌓여 이루어져요. 따라서 문장 하나를 해석하는 힘이 없으면 글을 제대로 읽을 수 없겠죠. 그런데 국어 영역에서는 문장 공부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들의 학습 계획표에서 국어 문장 독해에 관한 공부 계획을 찾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문장 공부 없이 바로 글 공부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이 국어 영역이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예요. 사실 독해의 문제는 대부분 문장 읽기에 있어요. 글 독해의 문제처럼 보이는 것들도 실제로는 문장 독해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장 공부를 등한시한 이유는 단지 한국어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한 문장을 읽는 능력은 독해뿐만 아니라 문제 풀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래 문제를 봅시다.

2017 9월 모의평가

25.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건축 재료의 특성과 발전을 서술하면서 각 건축물들의 공간적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 ② 건축 재료의 특성에 기초하여 건축물들의 특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 ③ 건축 재료의 기원을 검토하여 다양한 건축물들의 미학적 특성과 한계를 평가하고 있다.
- ④ 건축 재료의 시각적 특성을 설명하면서 각 재료와 건축물들의 경제적 가치를 탐색하고 있다.
- ⑤ 건축물들의 특징에 대한 평가가 시대에 따라 달라진 원인을 제시하고 건축 재료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위 25번에서 발문과 선택지는 한 문장입니다. 따라서 문장을 읽는 능력은 문제를 다룰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문제를 정확히 풀지 못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해요. 문장을 읽는 능력이 부족하다보니 발문, 선택지를 읽어도 무엇을 묻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국어 영역도 영어 영역처럼 문장에 많은 관심을 주어야 해요.

그렇다면 문장은 어떻게 읽는 것일까요? 이것은 다음 단원인 '행동 교정'에서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지금은 '사고 교정' 단원이므로 설명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만 문장 읽기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 한 문장 읽기가 무엇인지 느껴봅시다!**

2017 대학수학능력시험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해당 지문의 첫 문장이예요. 한 문장이라 단순해 보이지만 속에 담긴 정보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볍게 읽으면 내용을 놓치게 됩니다. 내용을 꼼꼼하게 읽기 위해서는 문장을 손질해야 해요. **영어 영역에서 하는 것처럼 위 문장을 여러 개로 나누어 봐요.** 마음껏 잘라봅시다. 틀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나누어 봤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우선은 아래의 설명을 그대로 따라해 봐요. 모방은 처음 학습을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있어 매우 효과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아래에서 제가 나눈 방식이 유일한 정답은 아니예요. 더 잘게 나눌 수도 있고 크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리한 내용은 저와 같아야 해요.** 우리는 같은 문장을 읽었으니까요.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
지식을 //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
구분한다.

왜 이렇게 나누었을까요? 설명을 위해 문장에 대해 짧게 공부해 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 문장 구성의 순서 : 주어-서술어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를 가집니다. 이때 주어의 순서는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 **서술어의 앞에 위치하죠.** 그리고 **문장의 시작 부분에 위치합니다.** 때로는 내용을 풍부하게 전달하거나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서술어가 주어의 앞에 위치하기도 해요. 주로 문학에서 그렇죠. 그러나 독서의 문장들은 주어와 서술어의 위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순서가 바뀌면 내용 전달에서 혼동이 발생할 수 있겠죠.

아래 두 문장을 봅시다.

- ① 내린다 눈이.
- ② 눈이 내린다.

①과 ②는 모두 주어 '눈이'와 서술어 '내린다'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만 순서가 다르죠. ①은 서술어가 주어의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이와 같은 문장은 독서 지문에 나오지 않아요.

②번을 봅시다. 주어 '눈이'와 서술어 '내린다'가 <주어-서술어>의 순서를 따르고 있어요. **문장이 주어로 시작하고 있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어를 먼저 찾게 됩니다.** 서술어는 문장의 끝에 위치하죠. 문장의 시작에는 주어가, 끝에는 서술어가 위치한다는 점을 활용하면 주어와 서술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주어는 서술어의 주제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어떤 행동이나 상태의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것이 주어입니다. 만약 '윤종이가 음료수를 마신다.'라는 문장이 있다면 '누가' 마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주어입니다. '윤종이가'이죠. '하연이가 예쁘다.'이면 '누가' 예쁜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해요. '하연이가'이죠. 어렵지 않죠?

문장에서 주어를 찾을 때는 크게 세 가지 관점을 활용할 수 있어요. 첫째는 **문장의 순서**입니다. 둘째는 **내용적인 분석**입니다. 내용을 따져서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것이죠. 앞서 설명한 것들이에요. 마지막은 **'가'와 '이'를 찾는 것**입니다. 명사에 붙어 주어의 역할을 갖게 하는 조사를 주격조사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와 '이'가 있어요. ②를 봅시다. '눈'은 명사예요. 명사란 사물의 이름을 말합니다. 명사 '눈'에 주격조사인 '이'가 붙은 '눈이'는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눈은 내린다.

'이/가'의 위치에 '은/는'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위 문장에서 '눈은'은 주어가 분명합니다. 명사 '눈'에 '은'이 붙어 '눈은'을 주어로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은/는'을 주격조사라고 하면 좋겠지만 '은/는'은 주격조사가 아니라 보조사입니다. '은/는'이 보조사인 이유는 주격조사와 분명하게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독서에서는 ‘이/가’와 ‘은/는’의 구별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문장 속에서 주어를 찾는 이유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문법을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은/는’이 오든 ‘이/가’가 오든 주어를 찾을 수 있다면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 문장 속에서 주어를 찾는 법**

1. 문장의 시작 부분에 위치했는지 확인
2.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지
3. ‘가’와 ‘이’로 끝나는 덩어리를 찾기

이것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 한국어는 모국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주어-서술어를 분명히 하자

2017 대학수학능력시험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주어, 서술어를 찾아봅시다. 주어는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입니다. 앞서 배운 대로 **주어가 문장의 시작 부분에 위치**하고 있죠.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격조사 ‘이/가’가 아니라 **보조사 ‘는’이 보이네요.**

서술어를 찾아봅시다. 문장 끝에 위치한 ‘구분한다.’이죠. 이제 문장의 나머지 성분들을 제외하고 주어와 서술어를 바로 연결해 봅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구분한다.

어때요? 길고 복잡한 문장이 짧고 단순해졌죠? 주어와 서술어를 분명히 하니 내용의 뼈대가 세워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알맹이가 빠진 느낌이죠. ‘구분한다.’의 ‘무엇을’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 목적어를 찾아 서술어에 붙입니다.

서술어 '구분한다.'의 뜻을 생각해 봅시다. 내용이 만들어지려면 '무엇을'에 해당하는 내용이 꼭 필요하죠. 예문으로 돌아가 '무엇을'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봅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구분한다.

'구분한다.'의 '무엇을'에 해당하는 것은 '지식을'입니다. 이것을 목적어라고 해요. 목적어 '지식을'의 '지식'은 서술어 '구분한다.'의 대상이에요. 문장 시작 부분의 '이/가'나 '은/는'을 통해 주어를 찾는 것처럼 목적어는 조사 '을/를'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을/를'을 목적격조사라고 합니다. 명사 '지식'에 '을'이 붙어 '지식을'이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 목적어는 주로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위치해요. (주어-목적어-서술어)

주어, 서술어와 마찬가지로 목적어도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목적어의 위치는 주어와 서술어의 사이입니다.** 사실 당연한 내용입니다. 주어는 문장의 시작, 서술어는 문장의 끝에 위치하니까요. 물론 목적어가 주어의 앞에 위치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보 전달이 목적인 독서에서는 내용을 깔끔하게 전달하기 위해 <주어-목적어-서술어> 구성 순서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문장을 읽을 때는 주어를 찾고 그 다음에 목적어를 찾고 마지막으로 서술어를 찾게 되겠죠.** 그리고 목적어는 서술어를 연결되어 의미를 만들게 됩니다. **서술어와 분리되면 내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주어든 목적어든 서술어든 그것을 찾은 후에는 반드시 서로 연결해야 해요. 그래야 내용이 만들어져요.

● 나머지 문장 성분도 같은 방법으로 연결해요

- ①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 ② 지식을
- ③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 ④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 ⑤ 구분한다.

덩어리마다 하나씩 번호를 붙여 볼게요. 아직 얘기하지 않은 덩어리가 두 개 있네요. ③과 ④예요. ③과 ④는 문장이 길어진 원인이죠. 문장의 길이가 길면 당황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덩어리 단위로 나누어서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③과 ④는 두 종류의 ‘것’입니다. ③에서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은 첫 번째 ‘것’에 대한 설명이고 ④에서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은 두 번째 ‘것’의 설명이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①이 ②를 ③과 ④로 구분한다.

어떤가요? 길이가 제법 긴 문장인데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이 들죠? 이것이 문장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이 정도의 수준으로 문장을 읽을 수 있어야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문제도 풀 수 있어요. 해석의 깊이가 일상의 국어에 비해 훨씬 깊고 과정이 치밀하다는 느낌이 들죠? 여러분은 이 수준까지 문장 독해력을 끌어 올려야 합니다.

영어 영역과의 비교가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수학영역과 국어영역을 비교해 볼게요.

* 다른 영역과의 비교 : 수학 영역

(1) 문제마다 걸리는 시간은 다르다

수학 영역을 대하는 자세와 국어 영역을 대하는 자세를 비교해 봅시다. 영어 영역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드러나요. **문제 풀이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수학 영역은 국어, 영어 영역과 달리 지문 없이 문제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문제부터 읽으며 어떻게 풀면 좋을지를 고민합니다. 또한 수학 시험지의 모든 문제를 같은 시간을 두고 푸는 학생은 없을 거예요. 1번은 1분, 30번은 30분 이런 식으로 문제마다 사용할 시간을 다르게 배분합니다.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풀이에 걸리는 시간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국어 영역에서는 **난이도에 상관없이 모든 문제를 같은 시간에 풀려는 학생이 많아요**. 모든 문제의 난이도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지문도 마찬가지로요. 모든 지문을 같은 시간을 두고 읽으려 합니다. 지문 하나에는 보통 3~6개의 문제가 따라옵니다. 이 문제들의 난이도가 모두 같을까요? 지문들의 난이도가 모두 같나요? 아니죠. **수학 영역처럼 국어 영역도 문제, 지문마다 난이도가 다양해서 이해와 풀이에 필요한 시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문은 문제까지 푸는데 2~3분이면 충분한 반면, 독해에만 10분을 써도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큰 난이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어 영역도 수학 영역처럼 문제와 지문의 난이도에 따라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해야 해요.

(2) 답을 찾았다고 해서 문제를 잘 푼 것은 아니다

시간 배분뿐만 아니라 문제를 푸는 방법에서도 눈여겨 볼 점이 있어요. 수학 영역을 생각해 봅시다. 공식만 외우고 다 공부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나요? 없죠. **풀이에 사용하는 공식은 기본이고 공식이 사용되는 문제의 유형과 그에 맞는 효율적인 풀이 방법까지 준비**해요. 공식만 외워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학생은 찾기 어렵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지 고민하는 것**이죠. 문제에 많은 관심을 줍니다.

이와 반대로 국어 영역에서는 문제에 관심을 주는 경우가 드물어요. 독해력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국어의 독해법은 수학의 공식과 유사합니다. 독해법을 공부하면 글은 훨씬 매끄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요? 문제도 잘 풀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아래와 같이 대답하는 학생이 많아요.

“글을 잘 읽으면 당연히 문제도 잘 풀 수 있잖아요.”

당연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위 대답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어요. 글을 잘 읽으면 내용을 잘 이해하게 되고 당연히 문제의 정답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시험을 잘 본다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바로 '시간'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아래 상황을 읽어 보며 '시간'에 대해 알아보시다.

하연과 영준에게 같은 문제를 주고 풀게 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정답을 확인해보니 두 사람은 모든 문제를 맞혔어요. 그런데 하연은 5분이 걸린 반면 영준은 20분이 걸렸죠. 하연과 영준 중에서 누가 더 실력이 좋다고 생각하나요? 하연이겠죠. **시간이 적게 걸렸으니까요.** 만약 풀이를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 7분으로 제한했다면 결과가 어땠을까요? 하연은 5분 동안 답을 찾고 남은 2분 동안 검토할 수 있었던 반면 영준은 답을 낼 수 없었겠죠. 하연과 영준은 모두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맞혔습니다. 그러나 **풀이 시간이 제한되었을 때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은 문제를 잘 풀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죠.**

여러분 수능은 문제 풀이 시간이 제한된 시험입니다. 따라서 수능에서 필요한 능력은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는가**이죠. 단순히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은 수능에서 의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학생들은 시간에 대한 고민 없이 답을 찾는 것에만 집중해요. 앞선 상황에서 보듯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과 시험을 잘 본다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시험은 시간을 최대한 적게 써서 답을 찾아야 해요.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시험장에서 쓰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평소 시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최단 시간에 풀 수 있는지를 고민한 적이 없는데 시험장에 가서 시간을 줄이려고 하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시간에 대한 잘못된 두 가지 준비법

이렇게 얘기하면 “어 저는 시간을 재면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라고 답하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학생들이 풀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문제 푸는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스톱워치에 7분을 맞추고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죠. 7분 안에 들어오면 잘 했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초과하면 잘못 했다고 생각해요. 둘째, **눈과 손을 빠르게 움직여요. 행동을 빠르게 하는 것이**죠. 지문에 표시를 하거나 페이지를 넘길 때 서두르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연습하면 풀이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나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두 가지 연습은 시간에 대한 공부 아니에요. 오히려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 수도 있죠. 하나씩 볼게요.

● 풀이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시간 공부가 아니다

많은 학생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풀면서 시간이 단축되기를 기대합니다. 보통 학생들이 지문 하나에 주는 시간은 5~7분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죠. 시간을 재고 있어서 시간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 관리가 아닌 시간을 제한한 것뿐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 관리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앞서 지문은 모두 난이도가 다르다고 했죠. 3분 안에 문제 풀이까지 끝낼 수 있는 지문도 있는 반면 7분 동안 글 내용만 이해하기도 벅찬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푸는 모습을 보면 난이도에 상관없이 5~7분 정도의 시간을 둡니다. 3분 안에 마칠 수 있는 지문에 5분을 주고 10분 동안 글 읽기도 벅찬 지문에도 7분을 줍니다. 시간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시간을 제한하고 문제를 푸는 것은 서두르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3분 안에 풀 수 있는 경우에 5분을 두게 되면 남은 2분을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 10분이 넘게 필요한 문제인데 5분을 두게 되면 할 수 없는 것을 몰아 부치는 꼴이 되어 답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기분만 상하게 돼요. 지문마다 적절한 시간을 정해서 연습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처음 보는 지문과 문제이기 때문이죠. 읽고 풀기 전에는 난이도가 어떤지 알 수 없어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정할 수 없겠죠.

● 무조건 서두른다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둘째로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을 시간 관리라 생각하는 경우예요. 행동이 무척 느린 학생이라면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시험에서는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느낌을 받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행동이 느려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게 아니에요.

시험장에서의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느긋한가요? 아니죠. 평소보다 급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너무 빨라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시험을 볼 때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시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행동이 느려서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빨라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빠르게 움직이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죠.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 문제는 푸는 방법이 있다

글을 읽는 방법이 있듯 문제도 푸는 방법이 있어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문제를 푸는 방법을 공부해야 해요.** 빨리하라고 몰아 부치는 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방법이 잘못 되었기 때문이에요. 수영하는 법도 모르는데 무작정 손과 발을 빨리 움직이는 것과 같아요. 시간은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죠.

문제를 다루는 구체적인 방법(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뒤에서 배울 거예요. 설명이 더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충분해요.

●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내용이 조금 많았나요?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국어가 무엇인지 공부하는 중이에요. 다른 설명 없이 바로 국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국어 공부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내 상황을 알면 교재 학습이 훨씬 수월하거든요.

국어 영역과 다른 영역을 비교하여 국어 공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인했어요. 우선 영어 영역과의 비교에서 **독해 공부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어요. 국어 영역도 영어 영역처럼 **문장 하나하나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래야 문장의 연속인 글을 이해할 수 있고 한 문장으로 구성된 발문과 선택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고 했죠.

수학 영역과의 비교에서는 **문제 풀이의 문제점**을 확인했어요. 수학의 공식에 해당하는 독해법만 공부해서는 문제를 풀 수는 있지만 잘 풀 수는 없다고 했어요. **문제를 잘 푼다는 것은 정해진 시간 안에 정답을 찾는 것을 의미해요.** 지문마다 문제마다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시간이 모두 다르다고 했어요.

국어 공부에서 완성해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독해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독해력이란 글을 제대로 읽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란 정해진 시간 안에 정답을 찾는 능력을 말합니다. 두 가지가 모두 갖추어져야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해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다음 단원인 행동 교정에서 배울 내용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 나는 왜 정확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부했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어 영역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국어가 뭔지 모르니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몰랐던 거죠. 이제 진짜 국어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 국어 영역은 능력을 묻는다

국어 영역은 수능의 한 과목이에요. 수능은 지식이 얼마나 되는지를 묻는 시험이 아니에요. 대학에서 배울 새로운 지식들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지식이 아닌 지식 습득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인 것이죠. **국어 영역은 수능의 한 과목입니다. 따라서 국어 영역도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국어 공부의 목표는 그러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되겠죠.

수능의 취지에 맞게 국어 영역은 매년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해 왔어요. 그러나 시험의 목적을 알고 있는 학생은 많지 않았죠. 목적을 모르니 시험을 적절히 준비할 수 없었어요. 내가 왜 공부하고 있는지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학생들 대부분은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기출 문제, EBS 연계 교재를 풀며 성적이 오를길 기대해요.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학습 방법을 선택한 것은 국어 영역의 목적을 고려해서가 아닙니다. 친구들의 추천, 성적 향상 후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 결과는 어떤가요? 두꺼운 문제집들을 하나씩 풀 때마다 만족할 만큼 실력이 향상되었나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무엇을 공부한 거죠? 목적 없는 공부에서 무엇을 남길 수 있었나요? **국어 공부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느낌이 든 것은 공부와 시험의 목적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 독서(비문학)는 정보의 의식적인 습득을 요구한다

“국어 영역이 능력을 묻는다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이 능력이 구체적으로 뭐죠? 전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우선 **국어 영역의 목적이 능력 평가임을 꼭 기억합니다.** 이것은 국어 공부의 시작점이에요. 앞으로 배울 내용들은 이 시작점에서 뻗어 나와요. 나무 한 그루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능력 평가’란 뿌리에서 올라온 줄기와 줄기에서 뻗은 가지가 모여 국어 영역이란 나무 한 그루를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나무 한 그루를 시험장에 가져갈 거예요.

국어 영역은 크게 **비문학(독서)**과 **문학**으로 나눌 수 있어요. 비문학과 문학을 구분한 이유는 능력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이지만 **각각이 요구하는 능력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교재나 강의가 비문학, 문학으로 나뉘어 구성된 거예요. 문학보다 비문학을 먼저 공부하는 것이 좋아요. 공부 방향을 잡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비문학은 어떤 능력을 요구할까요? **비문학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정보의 의식적인 습득’ 이예요.** ‘**의식적**’이란 표현에 주의하세요. ‘정보의 습득’이 아닌 ‘정보의 의식적인 습득’ 이예요. 둘은 큰 차이가 있어요. 이에 대해 알아보시다.

* 첫째, 비문학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쓴 글이다

만약 글을 한 편 쓰는 숙제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정해진 주제나 표현 양식 없이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내용과 표현 방식이 무척 다양하겠죠. 나의 하루를 일기로 쓸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며 편지를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용은 자유롭지만 표현 방식은 내용에 비해 자유롭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 볼까요? 어떤 표현 방식을 선택할 건가요? 18학년도 수능의 ‘경제’ 지문처럼 쓰면 어떨까요? 이상하죠? 반면에 최신 과학 기술을 설명하는 글을 생각해 봅시다. 시처럼 쓰면 어떨까요? 이상하죠. 내용과 표현 방식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이처럼 표현 방식은 글 내용에 영향을 받습니다.

비문학은 어떤 내용을 담는 표현 방식인가요? 이 생각이 **비문학 공부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글은 글쓴이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글을 쓴 이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글을 잘 읽는다는 것은 글에 담긴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비문학도 마찬가지예요. 글쓴이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따라서 정확한 비문학 독해란 그 것에 맞게 읽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문학은 주장, 설득, 정보 전달 등 다양한 목적을 가져요. **그중 수능 비문학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해요. 과학 기술은 시, 소설 같은 문학보다 비문학으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비문학의 목적은 정보 전달이라는 점을 꼭 기억합시다!

‘정보 전달’이란 글의 목적에 따라 우리는 글을 읽으며 정보를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학생마다 차이가 발생해요. 글에 제시된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학생도 있는 반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어요. 내용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걸리는 시간도 학생마다 다를 수도 있겠죠. 독서에서 평가하는 능력이란 바로 이것들을 말해요. 정보를 정확하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입니다. **비문학의 모든 문제는 지문의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평가해요. 그리고 풀이 시간을 정하여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시간이 적게 걸릴수록 실력이 좋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비문학의 출제 방향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국어 영역은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고, 그 능력은 문학과 비문학에서 차이가 있어요. 수능 비문학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해요. 문제는 지문의 정보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묻습니다. 이것이 능력 측정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비문학의 본질은 모든 독서 문제에서 공통이므로 교재를 공부하는 동안 여러 번 만나게 될 거예요.

‘비문학은 정보의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 둘째, 능력이란 의식적으로 꺼낼 수 있는 것만을 의미한다**

‘국어는 흐른다’를 처음 출간했던 때가 생각나요. 2013년이네요. 출간 이후로 꾸준히 면담을 진행했는데 지금까지 면담한 학생은 약 5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면담을 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물어본 질문이 하나 있어요.

“작년 수능에서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위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많이 돌아온 대답은 아래와 같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긴장해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긴장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수능에서 긴장하지 않을 수 있나요? 이번 시험은 어떻게 대처할 건가요?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될 사실은 **긴장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예요. 이번 시험에는 긴장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해도 결국은 긴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긴장을 줄이겠다고 다짐하는 것보다 **긴장된 상황에서도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시험에서는 평소에 쉽게 되던 것들이 잘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긴장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머릿속에 필요한 생각이 바로바로 떠올라요. 반면 시험은 긴장 때문에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아요. 시험을 준비한다면 긴장된 상황에서도 꺼내어 쓸 수 있도록 공부해야 한다고 했죠. 긴장 속에서도 필요한 것을 꺼내는 것을 저는 의식적인 차원이라고 합니다. **의식적인 차원이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왜 이것을 하는지를 분명히 해서 어떤 상황에서든 필요한 것을 꺼내어 쓰는 것을 말해요.** 머릿속에 필요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판단해서 그에 맞는 방법을 직접 선택하는 것이죠. 6, 9월 모의평가는 잘 보는데 수능에서 무너지는 학생이 있죠? 수능이 모의고사보다 훨씬 떨리기 때문이에요. 모의고사는 긴장이 덜 해서 평소대로 차분히 대처할 수 있었지만 수능에서는 지나친 긴장 때문에 머리가 굳고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직접 상황을 판단해서 필요한 것을 억지로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결국 시험에서 요구하는 능력이란 긴장된 상황에서도 꺼내어 쓸 수 있는 의식적 차원을 말해요.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지하고 왜 이것을 하는지, 이를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교차’란 방법을 공부했다면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물론,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야 하는지까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차가 필요한 상황임을 직접 확인하고 적용하는 것이죠.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의식적인 관점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